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나타난 조형 분석 연구

최산¹, 박승철^{2*}

¹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²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주얼리 전공 교수

A study on anlysis of modeling from the short story 'When Buckwheat Flowers Bloom' of Lee Hyoseok

San Choi¹, Seung-Chul Park^{2*}

¹Doctoral student, General graduate school, College of Arts, Kongju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MAJOR IN JEWELRY, College of Arts,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다양한 문화와 문명 속에서 예술가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창작하기 보다는 고전의 아름다움을 재해석하고 현대에 맞게 정의 하는 새로운 발상을 시도하고 있다. 즉, 현대의 문화 트렌드는 넘쳐나는 많은 정보들 속에서 고전의 감성과 예술가의 현대적 감각이 합쳐지는 새로운 문화가 수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문화와 디자인의 결합을 시도하고자한다. 소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나타난 개인의 심리적 정서, 불가능한 체험의 세계를 표현한 특징을 바탕으로 현실과 상상 속 이분화 된 세계의 경계 부분인 불완전한 의식 영역은 사고와 잠재적인 세계로서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일으키며, 이러한 문학적 서정성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분야이다. 또한 시각화하기 좋은 언어의 구성으로 연구자는 소설 속에서의 언어를 바탕으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적, 심상적 아름다움을 디자인의 소재로 활용하여 조형분석 하고자 한다.

주제어 : 고전, 메밀꽃 필 무렵, 문화, 언어, 디자인

Abstract In various cultures and civilizations, artists are trying new ideas of reinterpreting the beauty of classic and redefining it in the ways of modern times rather than creating something new. In other words, modern cultural trend is creating a new culture by combining sensibilities of classic amid the flood of information with modern senses of artists. This study tries to combine various cultures an designs in accordance with this cultural change. Based on the features of expressing emotions of individuals and the world of impossible experiences from the short story 'When Buckwheat Flowers Bloom' of Lee Hyoseok, an incomplete area of consciousness which is at the border line of the polarized world divided by existence and absence is the area which creates a new culture by arousing readers' imagination as a potential world of thought. In addition, based on language from the short story, a researcher tries to utilize symbolic and imaginal beauties inside of that language as a material of design, and formative analysis them with the composition of proper words for visualization.

Key Words : classic, About buckwheat flower, culture, language, design

*Corresponding Author : Seung-Cheol Park(scpark@kongju.ac.kr)

Received May 15, 2019

Accepted August 20, 2019

Revised June 18, 2019

Published August 28, 2019

1. 연구배경과 목적

학문의 경계가 없어지고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예술의 경계 또한 모호해져 전문성과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현대의 예술가들은 자신의 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이며 조형적인 시각화를 위한 노력이 날로 심화 되어 가고 있다. 근대시대까지의 예술사조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명확한 범위와 발전계기 및 양식적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현대의 예술사조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넓어 한가지의 예술사조로는 정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문명 속에서 예술가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창작하기 보다는 고전의 아름다움을 재해석하고 현대에 맞게 정의 하는 새로운 발상을 시도하고 있다. 즉, 현대의 문화 트렌드는 넘쳐나는 많은 정보들 속에서 고전의 감성과 예술가의 현대적 감각이 합쳐지는 새로운 문화가 수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문화와 디자인의 결합을 시도하고자한다. 소설에 나타난 개인의 심리적 정서, 불가능한 체험의 세계를 표현한 특징을 실제와 부재, 진실과 거짓, 실제와 가공, 현실과 상상간의 양분화된 세계의 중간부분 양극을 가르는 그 사이의 경계선 부분인 불안정한 의식 영역은 비가시성의 사고와 잠재적인 세계로서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일으키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분야이다. 또한 시각화하기 좋은 언어의 구성으로 연구자는 소설 속에서의 언어를 바탕으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적, 심상적 아름다움을 디자인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조형분석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메밀 꽃 필 무렵』의 고찰

연구자는 『메밀꽃 필 무렵』의 고찰을 크게 줄거리와 소설의 삼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2.1 줄거리

20년간 장과 장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한 장돌뱅이 허생원은 늘 수입이 변변치 못하다. 오늘의 봉평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해가 중천에 있는데도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대화장에서 또 기대를 해본다. 저녁때였다. 동이가 충주댁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서 격분한 허생원은 동이의 뺨을 때렸으나 동이는 별 대꾸 없이 밖으로 나간다. 허생원은 오히려 마음이 섬뜩해졌다. 한 바탕 나귀소동이 있

은 후, 다시 대화장을 향해 떠난다. 허생원은 이렇게 달이 밝은 밤이 되면 또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사랑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조선달은 늘 듣는 이야기를 오늘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듣고 있다.

오늘 같은 여름날이었다. 객주집 토방이 더워서 개울가로 목욕이나 하러 나갔던 허생원은 달빛이 너무 밝아 옷 벗으로 물레방앗간에 갔다가,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관계까지 갖게 되었다. 집안일 때문에 그 성서방네 처녀는 그 다음날 자취를 감추고 그녀를 사랑으로 찾아 헤맨 허생원이었지만 헛수고였다. 그 후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하룻밤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봉평 근처를 떠돌며 혼자 장돌뱅이로 살아온 허생원이다.

다시 길을 걸으며, 허생원은 동이에게 가족 사항을 묻는다. 동이의 아버지 없는 사연과 어머니가 기구하게 살아온 사연을 듣고, 이윽고 그 어머니 고향이 봉평이라는 말이 그만 실족하여 물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 동이의 등에 업히는 신세가 된다. 그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지 모르는 희망을 안고, 길을 서두르며 동이 역시 왼손잡이임을 확인하고는 자신도 동이와 더불어 대화장을 마치고 제천으로 향하겠노라고 말한다[1,2].

2.2 인물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허생원과 조선달, 동이 등이 주요인물로 등장한다. 이야기의 중심은 허생원이며, 각 인물들은 허생원 개인에게 종속되어 있다. 작품 속 허생원의 특징은 그가 왼손잡이이며 장돌뱅이 얼음뱅이라는 것이다. 이세가지는 허생원의 처지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이다. 장돌뱅이의 생활은 이장 저장 떠돌아 다니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다. 또 왼손잡이 및 얼음뱅이라는 사실은 정상인들에 비교해볼 때 부족한 요소들이다. 그의 특징들은 시장판의 각다귀들에게조차 놀림거리가 된다. 이렇듯 부족한 요소 때문에 허생원에게는 진취성이나 적극성이 결여되어있다.

불안정한 직업과 신체적인 특징으로 인해 적극적인 행동이 부족하지만, 허생원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충족은 언제나 함께하는 당나귀와 과거 한차례 만났던 여인에 대한 회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작품에서 당나귀는 또 다른 허생원이다. 그는 성처녀 그리고 당나귀에 대해 부정기적 또는 순간적으로 동화된다. 작품 속 그의 동화는 표면적 동화와 이면적 동화로 나타난다. 표면적 동화는 구체적인 대상과 더불어 작품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반면 이면적 동화는

사건이 진행되며 작품의 구조 속에 암시되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동화는 허생원이 봉평장을 파하고 대화장을 향해가는 하룻밤의 여로를 통해 확인 된다. 작품 중 큰 비중인 이 하룻밤은 허생원이 그토록 고대하던 성서방네 처녀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성처녀와의 만남 후 허생원은 반평생 동안 재회를 간절히 바랬다. 허생원의 제천행은 그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암시로 볼 수 있다. 이 만남은 사건의 흐름을 통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암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작품의 이면에 가지워져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허생원의 내면적인 동화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표면적 동화 행위는 성처녀에 대한 회상과 당나귀에 대한 감정을 통해 허생원 자신만이 내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작품에서 성처녀를 만나고자 제천으로 가고자 하는 점과 동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은 허생원 뿐이다. 허생원의 내적 심경과 위의 사실에 대해 조선달과 동이는 알지 못한다. 허생원의 세계인식태도는 작품 전체에 입각하여 볼 때 한 인물에게 국한된 폐쇄적 인식이다. 허생원이 부분적으로 세계의 대상에 동화되고 있지만 그것은 작품내의 다른 인물들과 공유되지 못하므로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허생원의 삶의 태도이자 메밀 꽃 필 무렵의 세계인식이다[3,4].

2.3 사건

허생원에게 발생하는 두 번째 일탈은 동이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허생원은 여러 사건을 거치며 동이가 자신의 자식임을 확인한다. 이 작품은 허생원과 동이의 부자 관계를 은밀히 전하는 암시적인 일곱 개의 사건들로 짜인 소설이다. 허생원의 이야기는 소설의 시간속 순서의 사건들에 의해 통일성을 기하게 된다. 나아가 단편소설의 전형으로 극적 사건구조를 구현한다. 은미한 일곱 사건은 허생원과 동이의 관계를 확실시 하는 극적인 점진적 구조를 전한다. 사건들은 암시적으로 처리되며, 일종의 추리를 요구한다.

이 작품에는 크게 이십년전 허생원의 시간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의 시간이 존재한다. 과거의 경험 또한 서사의 순간에는 경험을 해석하는 본질적 시간으로 바뀌지만 이 작품에서 이 두 시간들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품 중 허생원은 사건의 의미 주체이다. 이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생원에게 맞춰져 되어 있다. 독자는 허생원에 의해 경험된 사건들과 그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이야기를 만난다. 허생

원과 동이의 부자 관계가 서사의 흐름을 극적으로 가져가지만, 이 둘은 서로를 확인하며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사건의 흐름이 하나의 효과가 되고 이것이 힘으로 발현되는 것은 오로지 허생원의 내면에서의 문제이다. 그는 자신 내부의 동요된 감정을 억제하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해석한다. 경험을 이루는 집중된 영역에 동이와 조선달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5-7].

2.4 배경

이 작품은 장소와 사물을 동시에 상징화 한다. 봉평이라는 장소를 강화하고 그 사물은 장소를 수식하는 자연이 된다. 이 작품의 큰 흐름인 성처녀와의 첫 인연과 동이와의 만남은 봉평이란 장소에서 발발한다. 이렇듯 봉평은 제목으로 부상할 정당한 의미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이작품의 제목에는 봉평이 배제되어있다. 제목 메밀꽃 필 무렵은 장소와 시간을 각각 표상하며 이들을 합일시킨다.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 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꽃 이야에는 앞선 의도가 잘 스며들어 있다. 서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는 이 장면은 『메밀꽃 필 무렵』의 대표적인 사건과 겹쳐져 보인다. ‘지금이나 그제나’에는 시간의 흐름이 혼적이 되고, 전도 가능한 혼돈이 되며 미래를 향한 꿈꾸는 시간성을 담는다. 봉평에서의 이십년전 경험은 단순한 하나의 기억이 아닌 현재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 경험이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의 힘이 되기 위해 무엇인가 지속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봉평이란 장소이다. 여기서 ‘메밀밭 하얀꽃’, 이 메밀꽃은 봉평과 밀접하다. 봉평의 메밀꽃은 대표적 사건의 발생을 일으키는 유혹이며 사건들을 인연으로 묶는 매제이다[8,9].

3. 『메밀꽃 필 무렵』의 조형분석

『메밀꽃 필 무렵』의 고찰을 통해 줄거리 및 인물, 사건, 배경 등의 소설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상징적 해석, 서정주의적 해석, 낭만주의적 해석을 통해 상징적 요소, 서정주의적 요소, 낭만주의적 요소를 선정하였다.

상징적 요소를 여섯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공간적 상징인 봉평과 물레방앗간으로 봉평은 이야기의 시작의 장소이며 물레방앗간은 허생원과 성처녀의 만나고 이별, 생성과 상실의 공간이다. 둘째, 구조적 상징인 길은 허생원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허생원은 20년전 성처녀와의 강렬한 만남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회의 기대 속에서 장돌뱅이의 삶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길은 허생원의 재회의 열망을 모티브로 담고 있다. 셋째, 배경적 상징요소는 달빛과 백색 메밀꽃이다. 달빛과 백색 메밀꽃은 허생원과 성처녀의 순수한 사랑을 상징한다. 넷째, 배경적 상징으로 달빛과 물레방아 이다. 이 두 요소는

모두 동그란 형태를 지니고 있어 20년의 세월을 지나 재회할 것이라는 허생원과 성처녀와의 인생을 상징하는 사물이다. 다섯째, 인물의 상징성이다. 소설 속 당나귀는 ‘나이가 많고 소심하며 암컷을 좋아하는 음탕한 동물’로 묘사되어 있다. 허생원은 자신의 이미지를 당나귀에 대입

Table 1. 『About buckwheat flower』 Formative element

Element	Division	Novel content	Meaning
Symbolistic	Spatial	Bongpyong	The beginning of the story
		Millet mill	Meeting and separation, Space of creation and loss
	Structural	Way	A space that symbolically reveals the fate of the Heo Saeng-Won
	Background	Moonlight, White moss flower	The pure love of the Heo Saeng-Won and the virgin
	Objects	Round moon, Millet mill	The symbolic things that the Heo Saeng-Won associate with the virgins
	Character	Donkey	The symbol of the Heo Saeng-Won
	Behavior	Brook	Image of playback, A new starting point symbol
Jecheon		A symbol of life's passion and reunion	
Lyrical	Compression, Describe, Event consolidation		
Romantic	Utopia	Natural image	The logic of reality denial
	Setting of Paradise	Jecheon	

Table 2. Design principles

principle	Explanation	
Unity	Define	The combination or order of an aesthetic relationship in terms of type, color, quantity, material and technology, sensually or practically.
	Kinds	①Almost : How to make each of the separated elements seem to belong to each other because of their proximity.
		②Continuity : How to easily move from one element to the next .
Change	Define	Unification can not be separated from unification so that changes are made within the bounds of unification, thereby gaining its value.
	Kinds	Proportion, rhythm, contrast, increment, change, contradiction.
Balance	Define	One way for total unification. Features that create a sense of security.
	Kinds	①Symmetry : The most generally balanced form in the most orthopedic form of balance.
		②Asymmetry : It is unbalanced in shape but balanced by the adjustment of visual force. It is more charming and mysterious than the balance of stability, individuality, and formality in the form of change to visible people.
	③Proportion : It deals with the relative size of all things. Meaning the balance that is fundamental to harmony.	
Harmony	Define	There is no qualitative or quantitative contradiction between the parts and the parts that make up the aesthetic object, and the ordering is carried out to create beauty.
	Kinds	①Similarity: A combination of elements of the same nature, emotional effects due to visual force balance. It is gentle but it is monotonous and it is used to increase the effect when it is repeated.
		②Prepare: Expressing confrontation and tension in a combination of completely different elements, emphasizing each other.
Rhythm	Define	You can feel it when you give regular or periodic order to the same element or similar elements.
	Kinds	①Repeat : By repeating the same type of structure and moving the eyes, the rhythmic feeling is expressed by giving a dynamic feeling.
		②Gradual : Stepwise change between each part. It gives a strong impression and you can feel a light rhythm.
	③Emphasis : Construct each part by giving a step to the strength of the visual force.	

하여 자신과 당나귀의 처지가 같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행동적 상징요소인 개울과 제천이다. 개울은 재생의 이미지이며, 새로운 시작점을 상징하고 제천은 삶의 열정 및 재회를 상징하는 요소이다.

서정주의적 요소로는 크게 소설의 전개속에서 나타나 있다.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지도 모른다는 압축적 내용과 봉평의 메밀꽃, 길위의 달빛 속에서 연상되는 자연의 아름다운 묘사, 허생원이 뺨을 때린 동이가 본인의 자식일 가능성에 놀라, 개울물에 빠지고 심지어 동이에게 업히게 되는 사건강화를 말한다.

낭만주의적 요소는 아름다운 자연이미지와 재회의 상징인 제천을 설정하므로서 현실 부정하고 이상향을 설정하는 열린 결말을 말한다.

연구자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조형분석을 위해 소설을 바탕으로 크게 상징적, 서정주의적, 낭만주의적 요소를 선정하여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선정된 요소는 소설의 내제적 아름다움과 감성을 담고 있는 요소로서 조형적으로 해석하여 장신구 디자인의 형태적 요소로 시각화에 응용하고자 한다[10-12].

4. 디자인 원리에 의한 조형성의 구성

선정된 『메밀꽃 필 무렵』의 조형 요소들을 바탕으로 디자인에 적용함에 있어 디자인 원리에 대입하고자 한다. 디자인 원리의 구성은 Table 2와 같이 크게 조화, 리듬, 균형, 변화, 통일 등이 있다[13-17].

5. 결론

본 논문은 다양한 문화의 변화 속에서 행해지는 예술 작품의 트렌드에 맞춰 소설이라는 장르와 장신구의 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조형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설은 작가의 개인적 심리와 더불어 글로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문화의 일부이다. 이런 점에서 장신구를 착용하는 사람의 개성 표현 수단과 작가의 생각과 개성 표현 수단이 디자인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 소설과 장신구의 결합은 새로운 문화 트렌드의 형성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연구자는 소설 중에서도 대중적이면서 서정적이고 온화하여 언어의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선정하여 디자인 요소로서

분석 하였다.

디자인에 응용하기 위해 메밀꽃 필 무렵의 줄거리와 소설의 삼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알아보았다. 또한 선행 연구된 연구자들의 예술사적 해석을 통해 『메밀꽃 필 무렵』의 조형요소를 Table 1의 상징적 요소, 서정주의적 요소, 낭만주의적 요소로 구분하고, 이를 디자인 원리에 의한 조형성의 구성 요소로 Table 2로 분석하였다.

소설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디자인에 응용하기 위해 이들을 구분하고 디자인 원리에 대입하였다. 상징주의적 요소를 통일과, 변화의 원리로 서정주의적 요소를 균형과 조화의 원리로 낭만주의적 요소를 리듬의 원리에 대입하였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 디자인 연구에서 부족하게 이루어졌던 무형 형태의 시각화 및 디자인 전개와 이를 형상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향후 다양한 문학과 디자인의 결합이라는 주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연구자의 연구는 이효석이라는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에 한정되어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좁다. 따라서 향후 디자인에 있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의 일부인 소설, 시, 수필 등의 감성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해석하여 디자인에 활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서구의 다양한 문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디자인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S. Kim. (2004). Beauty consciousness appearing in the time of Lee Hyo-seok's buckwheat flower.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Humanities Research Study*, 5, 221-222.
- [2] M. Y. Woo. (1992). Emotion expressed in the time of buckwheat flower.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Cultur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0, 235-240.
- [3] K. S. Song. (2014). Hiding and revealing the truth - When buckwheat flowers. *Korean Literature Society,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68, 362.
- [4] W. H. Kim. (2013). *The poetry of the beginning of Korean short story*. Seoul City : Blue world.
- [5]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ictionary*. (1998). Seoul City : Korean Dictionary Researcher.
- [6] L. S. Lee. (2002). *Korean Modern Novel Criticism*. Paju City : Taehagsa.
- [7] J. H. Lee. (2011). *Narrative Discourse in Modern Korean Novels*. Seoul City : Joyul.
- [8] H. S. Lee. (2007). *About buckwheat Flowers*. Seoul City

: Literature and Intelligence.

- [9] J. S. Seo. (2013). *Lee Hyo-seok short-lived competing flower of buckwheat*.
- [10] M. L. Jee. (1997). *Romanticism and longing*. Seoul City : Literature and Intelligence.
- [11] M. S. Chae & H. S. LEE. (2005). *Korean modern short story*. Seoul City : Malg-eunchang.
- [12] D. I. Kim. (1992). *Analysis and appreciation of modern short stories in Korea*. Goyang City : Songjeongmunhwasa.
- [13] Charles Wallschlaeger & Y. H. Won. (1998). *Concepts and principles of design*. Angraphics.
- [14] Y. S. Kim. (1992). *Lee Hyo-seok novel research*. Doctoral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City.
- [15] Y. H. Kim. (2008). *Study of ornaments applying repetitive form of molding principle*.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City.
- [16] J. H. Jang. (2013). *A study on the design of orna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aesthetic elements of movement*. Doctoral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City.
- [17] E. Y. Choi. (2010). *A Study on Korean Modern Literary Novels: Lee Hyo-seok, Lee Tae Jun, Kim Dong-Ri*. Doctoral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City.

최 산(San Choi)

[정회원]



- 2015년 2월 : 공주대학교 주얼리 디자인과(석사)
- 현재 : 공주대학교 주얼리 디자인과(박사 재학)
- 2015년 2월 ~ 현재 :Artefact 대표
- 관심분야 : 3D CAD, 3D 프린팅, 금속공예, 4차산업혁명

· E-Mail : cssboy@naver.com

박 승 철 (Seung-Chul Park)

[정회원]



- 1997년 9월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주얼리디자인 전공 정교수
- 관심분야 : 3D CAD, 금속공예
- E-Mail : scpark@kongju.ac.kr